

01 교회소식**믿음으로 더 힘차게!**

교회 창립 40주년 이후에 펼쳐질 크신 권능,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믿음과 기쁨, 감사함으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02 생명의 말씀**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고 연단 중에도 중심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고 하나님 뜻에 즐거워 순종한다.

03 기획특집**창립의 기쁨을 더해 준다채로운 행사**

해외 인사들의 창립 40주년 축하 메시지와 2주 연속 교회 창립의 기쁨을 선사한 부천체육관의 다양한 부스 행사를 준비하고 체험한 성도들.

04 화보**교회 창립 40주년 축하공연**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시며 승리케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향을 찬양과 무용, 연주로 표현했다.

만민뉴스

제979호 2022년 10월 2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모든 섭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특히 올해는 10월 9일과 16일(주일) 2주간에 걸쳐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창립의 기쁨을 더했다.

GCN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불어, 몽골어, 베트남어 총 8개 언어로 동시통역 되었으며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몰도바, 캐나다, 콩고민주공화국,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스리랑카, 이집트 등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창립 40주년을 축하했다.

10월 9일 오전 11시 30분, 주일 대예배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상 설교 ‘사랑하시는 제단-하늘’(사 60:1~3)을 통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권능, 찬양 문화를 통해 이 제단에 영의 세계를 펼쳐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오후 3시 저녁 예배에는 1부 기념 예배로 당회장 직무 대행 이수진 목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사 60:1 ; 삼상 17:47)을 설교했으며, 2

부에는 특집 영상을 상영해 40년간 말씀과 기도, 권능으로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되새겼다.

특별히 10월 16일 주일 대예배는 예수교연합성결회 아프리카 총회장 정명호 목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5)라는 말씀을 전했으며, 저녁 예배는 부천체육관에서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를 가졌다.

부천체육관에 올려 퍼진 창립의 기쁨

10월 16일 오후 3시, 부천체육관에 모인 성도들은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를 통해 함께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임학영 목사(교역자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 예배는 이복님 원장(만민기도원)의 대표기도, 연합성가대와 낫시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로 이어졌다.

그 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연단은 축복이다’(사 60:1~3 ; 롬 8:18)라는 제목으로, 때가 이르면 준비된 만민을 통해 계획하신 모든 섭리를 이루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축복의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해 하나

님의 뜻을 이뤄 드리는 영적 장수가 되기를 축원했다.

2부 축하공연은 연합성가대 찬양을 시작으로 흰돌 성가대, 중창, 부채 무용, 북&전자현악, 워십 무용, 회중 찬양의 순으로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무용, 연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4면 참조).

3부 행사는 다양한 부스에서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민 사진전, 4행시 공모전 입선작 공개, 우림북 이벤트, 사진 활동소, 풍선 아트, 캐리커처, 캘리그라피, 경품 이벤트 등 남·여선교회, 가나안·청년선교회, 아동주일학교 등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행사들이 마련돼 성도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했다(3면 참조).

한편, 10월 7일과 14일(금) 전야예배에는 믿음으로 걸어온 40년을 되짚어보는 특집 만민매거진 1, 2부가 상영되었다. 이 외에도 10월 9일(주일)에는 ‘2022 만민찬양제’가 개최되었으며, ‘4행시 공모전’을 2주간 진행하였다.

1982년 10월 10일, 창립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는 성결의 오중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무수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왔으며 이후에 펼쳐질 크신 권능,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무수한 기적 곧 기사와 표적,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크신지를 알면 이러한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진리로 변화되어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자녀가 되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깨달아지니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1.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선과 사랑 자체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듯이 사람을 창조해 경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선과 사랑을 늘 표현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넘치는 크고 작은 다양한 간증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연단이 올 때 그러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헤아리는 사람은 연단 중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힘들이 온다고 해도, 어떤 오해를 받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양을 치던 소년 시절에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연단 중에 가장 먼저 직면한 현실은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타국과 광야를 떠도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미친 척해야 했고, 함께하는 무리를 위해 양식을 구하다가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요.

한번은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그일라 거민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기등등하게 다윗을 쫓는 사울 왕에게 오히려 그를 밀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선을 행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동고동락한 부하들이 돌로 자

신을 쳐 죽이려는 기막힌 일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연단의 시간 동안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찬송 시들을 남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시켜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정복하는 큰 왕이 되도록 축복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되는 축복입니다. 이 과정에는 연단이 따를 수도 있지만, 결국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받고 축복받으며 형통할 때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나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뤄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며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고, 하나님 섭리를 깨달아 중심의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행함이며, 그럴 때 가뭄 끝에 큰비를 내려 주시고 맑은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이 전혀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살려 주시고 고쳐 주시며, 가난하여 텅 빈 가루통과 기름병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지요. 또한 죄악을 신속히 벗어버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2.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심을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이를 때 육이라는 한계를 가진 사람은 보통 A라는 길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A보다 탁월한 B, C, D라는 길까지 뛰어들어 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이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서운해하거나 하나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지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재료를 정성껏 준비하고 찬양대, 성전 봉사자 등 조직과 제도를 미리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영적인 어린아이였지요. 전쟁을 치를 때 도 전술에 능했지만 세세한 분야까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지중에 하나님 뜻을 거슬렸을 때는 깨우치는 대로 겸손하게 회개하였고 반드시 하나님 뜻에 따라 즉시 돌이켰습니다. 이처럼 겸비한 마음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시 25:5).

대부분의 경우, 영육 간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쉽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연륜이 쌓일수록, 점점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이나 지도자가 될수록 다윗처럼 늘 하나님 뜻을 여쭙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뜻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앞세우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제단은 사람의 뜻과 지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사람의 생각과 뜻에 맞는 일은 거의 없었지요. 저는 책임자로서 항상 주님의 뜻만 따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조그만 개척 교회일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왔습니다.

모든 주의 종과 일꾼, 성도님들도 사명 감당하면서, 또 모든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가야 하지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뜻을 알아 즐겨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크심을 인정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이루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지요.

물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를 철저히 회개한 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죄성까지 벗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땅에서 뛰어난 왕으로 세워 주셨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했으니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심으로 범사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을 향해 많은 생각과 큰 뜻을 품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지혜롭고 위대한 분이었지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항상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찬송을 올릴 만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지요. 다윗이 찬양 시로 남긴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_ 다채로운 행사로 행복한 추억을 선사한 부스 체험



‘2022 만민찬양제’ 수상팀들



대상&인기상/ 김덕영 형제&김보문 집사(구미 만민교회)

▲금상/ 새롬중창단(여선교회연합회) ▾은상/ 강경희 권사(대전 만민교회)

Congratulations

“
세계 만민에게 빛과 생명을 전달한 40년, 축하드립니다
”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연맹 회장

“
국회의원이 되고 가족이 건강한 것은 이재록 목사님 덕분입니다
”



하룬 임란 길
파키스탄 편집주 국회의원

“
선교 사역 40주년을 이뤘다는 것은 중남미에도 큰 축복입니다
”



로살바 로드리게스 사장
콜롬비아 엔라쎄 방송

“
하나님께서 택하신 만민을 통해 성결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



유리 코로발로프 총회장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천국의 문 교회



1장 오프닝 창립 4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의 합창

깊은 감사의 고백과 사랑의 향을 담아 올려드려요!

교회 창립 40주년 축하공연



10월 16일, GCN방송과 인터넷으로 생방송 되는 가운데 예능위원회 주관 <교회 창립 40주년 축하공연>이 부천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함께하시며 승리케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향을 담아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 무용으로 표현했다.

특별히 전 출연진과 성도들, 국내외 시청자들이 함께 부른 회중 찬양은 진한 감동을 주었다.

닛시오 케스트라와 예능위원회를 비롯해 전문 스태프들이 조명, 음향, 영상, 특수효과 등을 맡아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다.



3장 승리 찬양 만민의 사역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5장 승리 연주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는 북&전자현악 연주



2장 창립 축하 모두가 한마음으로 창립 40주년을 축하한 공연



4장 승리 무용 40년간 참된 평안을 주심에 감사하는 부채 무용



6장 권능 역사 크신 권능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위십



7장 창립 기쁨 함께하신 하나님께 전 성도가 올려드린 회중 찬양



피날레/ 전 출연진이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 무대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의 대야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민민중앙교회와 NSS-6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파아 4층 ☎ 010-6218-0703
- 남포향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서읍 광역천서로 57 광림별당 7층 ☎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 051-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 033-0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 2길 6 ☎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길길 30 ☎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응산동 1210 ☎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 02)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 031)905-2419, 010-4710-9649